

# 차세대 클라리넷 연주자들 열띤 무대

### 광주클라리넷앙상블 정기연주회 22일 유·스퀘어 금호아트홀

‘차세대 클라리넷 연주자들의 다양한 무대.’  
 광주클라리넷앙상블(대표 백운선, 단장 정진용) 제3회 정기연주회가 오는 22일 오후 7시30분 유·스퀘어 금호아트홀에서 열린다.  
 이날 공연은 김민아·박효인·장민지·신은총의 아브레우 ‘티코 티코’를 시작으로 강하림·김혜화가 멘델스존, 이다운·고운누리가 마가니 ‘두 대의 클라리넷을 위한 콘체르트피스’를 연주한다.  
 이어 정진용 단장이 거수원 ‘파리의 미국인’ 독주를 선보이며 다함께 홀스트 ‘모음곡 2번’ 연주를 마지막 곡으로 연주한다.



백운선 정진용

소통하는 공연을 만들기 위한 고민을 엿볼 수 있는 단체다.

이번 공연은 2022년 ‘광주형 문화메세나 문화동행’ 광주문화예술 기부금 매칭 지원 사업이다. 전석 무료. 공연 내용은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공개된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그룹 소녀시대가 5일 서울 코엑스 호텔에서 열린 소녀시대 데뷔 15주년 ‘FOREVER 1’ 앨범 발매 기념 기자회견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연합뉴스

# 소녀시대 “15번째 생일 축하해주세요”

### 5년간의 ‘완전체 컴백’...장수 비결 “우리가 소녀시대의 팬이라서” 7집 ‘포에버 1’ 지난 활동 복습하는 음반...멤버들 배우로도 활약

“오늘이 딱 소녀시대가 데뷔한 지 15년이 된 날이네요. 아침부터 정말 생일 분위기가 나는 거 같아요.” 정확히 15년 전 ‘다시 만난 세계’로 가요계에 당차게 도전장을 내밀었던 소녀들이 여왕이 돼서 돌아왔다.

소녀시대는 지난 5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의 한 호텔에서 열린 정규 7집 ‘포에버 원(FOREVER 1)’ 발매 기념 기자회견에서 “완전체로 5년 만에 모인 이번 8월을 소녀시대의 달로 만들겠다”라며 가요계 여왕다운 포부를 밝혔다.

2007년에 데뷔해 어느덧 15살이 된 소녀시대는 이른바 2세대 K팝 여자 아이들을 대표하며 수많은 히트곡을 남겼다. 2009년 발표한 미니 1집 ‘지(GEE)’가 대히트하면서 당시 소녀시대가 무대를 선보이며 입었던 의상인 스키니진과 흰 티가 팬들 사이에서 대히트하기도 했다. 이외에도 ‘소원을 말해봐’, ‘오!’(Oh!), ‘런 데빌 런’(Run Devil Run), ‘훗’ 등을 연이어 히트시키며 전성기를 이어나갔다.

가요계를 주름잡던 소녀시대는 2014년 미니 4집 ‘미스터, 미스터’(Mr. Mr.)까지 9인조로 활동했으나 2015년 제시카가 사업가의 길을 택하며

소녀시대와 결별함으로써 8인 체제로 전환했다. 그룹 활동이 조금 뜸해지자 소녀시대는 멤버별 개인 활동에서도 두각을 나타냈다. 태연은 솔로곡 ‘I(아이)’, ‘파이어’(Fire)를 연이어 히트시키며 음원 강자로 떠올랐다.

윤아는 배우 활동에 주력해 지난 2019년엔 영화 ‘엑시트’로 900만 관객을 동원하는 등 블루칩 배우로 성장했다. 다른 멤버들도 각자 개별 활동에 치중하며 예능, 뮤지컬, 패션 등에서 다양한 활약을 펼쳐왔다. 미국 빌보드는 지난 2017년 다양한 활동을 펼치던 소녀시대에게 ‘지난 10년간 최고의 K팝 걸그룹’에 선정하기도 했다.

이번 신보 ‘포에버 1’은 소녀시대로서의 멤버들의 그간 활동을 총 집약한 음반이다. 데뷔 10주년을 기념해 발매했던 정규 6집 ‘홀리데이 나이트’(Holiday Night) 이후 5년 만에 발표하는 정규 음반으로 총 10곡이 수록됐다.

태연은 ‘포에버 1’에 대해 “소중한 사람들에게 대한 영원한 사랑을 표현하는 가사”라며 “지금의 소녀시대가 말하고자 하는 ‘우리 영원 하자’라는 가사도 담았다”고 말했다. 수록곡 ‘럭키라이크 댓’(Lucky Like That)은

소녀시대 걸을 든든히 버텨준 소원(팬덤명)을 위한 노래다.

윤아는 “오랫동안 소원하면 언젠가 다시 만나게 될 것이라는 메시지를 담았다”며 “저희 팬클럽 소원이 가장 먼저 떠오른 곡이다”고 소개했다. 그는 “제가 멤버들 중에 마지막으로 이 노래를 녹음했다”며 “오랜만에 전체 멤버들이 녹음한 목소리를 들으니 울컥했다”고 덧붙였다.

‘빌런’(Villain)과 ‘유 베테 런’(You Better Run)은 검은색 악마 컨셉트를 선보이며 큰 인기를 끌었던 ‘런 데빌 런’의 컨셉을 이어받았다.

티파니는 본인이 작곡한 ‘빌런’에 대해 “(런 데빌 런의) 다크한 소녀시대, 보컬과 댄스 퍼포먼스를 하는 소녀시대를 (팬들이) 떠오르게 하고 싶었다”고 말했다. 작사를 맡은 수영은 “약당을 뜻하기 보다는 평범한 사람과 다른 선택을 하는 ‘괴짜’라는 의미”라고 밝혔다. ‘유 베테 런’은 ‘런 데빌 런’에서 보여줬던 이후의 서사를 담은 곡이다. 서현은 “런 데빌 런의 가사를 이은 가사”라며 “이런 식으로 도전한 건 처음인 거 같다”고 설명했다.

소녀시대는 이번 컴백으로 국내 최장수 여성 걸 그룹이라는 수식어를 공고히 했다. 태연은 소녀시대의 장수 비결에 대해 “소녀시대가 소녀시대의 팬이기 때문이다”라며 “소녀시대를 지키고 싶다는 마음 하나로 이 순간까지 온 거 같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 포스트 코로나 시대 전망 렉처콘서트 열린다

### 광주문화재단, 김누리 교수 초청 11일 빛고을아트스페이스

포스트 코로나 시대 우리의 삶과 미래는 어떻게 바뀔 것인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전망하는 렉처콘서트가 열린다.

광주문화재단은 오는 11일(오후 7시) 빛고을아트스페이스 5층 소공연장에서 중앙대 독문과 김누리(사진) 교수를 초청해 빛고을렉처콘서트를 연다.



게 구현되어야 하는지 등을 조망할 예정이다. 김누리 교수는 중앙대 독어독문학과 및 동대학원 독일 유럽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고 한국독어독문학회 소장 등을 역임했다. 지금까지 ‘알레고리와 역사-권터 그라스의 문학과 사상’, ‘우리의 불행은 당연하지 않습니다-대한민국의 불편한 진실을 직시하다’ 등이 있다.

한편 다음 ‘빛고을융복합렉처콘서트’는 오는 9월 15일 전남대학교 박구용 교수가 ‘어제의 사랑과 내일의 사랑-진밀성의 구성과 구조의 변장’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문의 062-670-7926./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 시에그린 한국시화박물관 10월 21일 전국 시낭송대회

코로나 19 팬데믹을 극복하고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한 제1회 시에그린 한국시화박물관 전국 시낭송대회가 열린다.

시에그린 한국시화박물관(진도군 임회면 죽림길 97)은 전국 시낭송대회를 오는 10월 21일 오후 2시 박물관에서 개최한다.

시를 사랑하는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8일부터 오는 10월 1일까지 접수를 받는다.

희망자는 본 대회 참가 신청서와 낭송 녹음파일(배경음악 없음)과 시 원문을 메일(seaegreen@naver.com) 접수하면 된다. 예선심사는 오는 10월 5일 35명을 선발하며 낭송시는 3분 이내의 시여야 한다. 예선 통과자에게는 오는 10월 6일까지 개별 통보 및 카페에 공지할 예정이다.

대상 1명은 상금 100만원과 시낭송 인증서가, 금상 1명은 상장과 상금 60만원과 시낭송 인증서가 수여된다. 은상 2명은 각 30만원, 동상 3명은 각 10만원이 수여된다.

한편 타 전국 시낭송대회 최고상(대상) 수상자는 제외한다. 문의 061-542-1005.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 400만 돌파 ‘한산’ 한국어 자막... 현장감·대사전달력 높여



누적 관객 400만 명을 넘어서며 관객몰이 중인 ‘한산: 용의 출현’(사진)은 극장용 영화로는 이례적으로 한국어 대사에 자막을 입혔다.

영화 초중반에는 와키자카(변요한 분)를 비롯한 왜군의 일본어 대사에만 자막이 적용되지만, 후반부 전투장면에서는 이순신(박해일)을 비롯한 조선 수군의 대사에도 자막이 등장한다. 김한민 감독은 언론 인터뷰에서 “전장의 밀도감

을 높이기 위한 결단이었다”고 밝힌 바 있다. 전투 장면의 효과음과 배경음악을 최대한 살리면서도 대사도 잘 전달하기 위한 방책으로 자막을 삽입했다는 것.

관객 반응은 대체로 긍정적이다. 영화를 본 누리꾼들은 “전투장면에서 포 소리, 배경음악 등이 크면 대사가 잘 들리지 않을까 걱정했는데 자막이 나와 좋았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연합뉴스

다시 돌아가는 자연의 집

# 수 목 장

누구에게나 필수인 영원한 보금자리가 있습니다.

# 1522-9341